



2007 일본큐슈 연수기

도농녹색교류대학 제7기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생과 함께



최 동 주 사무총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나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도농녹색교류대학 7기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생 10명의 연수단(단장 전춘섭)과 함께 일본연수에 다녀왔다.

7월 9일 오전 11시30분에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45분 후쿠오카를 향해 질주하는 쾌속선 비틀호에 올랐다. 약 3시간가량의 여정으로 하카다(博多)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우리일행은 입국수속이 있어서 일본 숙박지(기쿠지 수이겐무라 교류관)의 주소지의 수정 때문에 가장 늦게 입국장을 나와 보니 쿠마모토대학의 도쿠노(徳野) 교수와 키쿠지 키라리수이겐무라의 이와사키 이사장, 고바야시 사무국장, 한국에서 약 6개월간 어학연수를 했던 京子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예정 보다 30분 늦은 오후 6시에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전세버스에 올라 첫 숙박지인 기쿠지 수이겐무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모두들 일본의 풍경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다. 특히 한국말이지만

京子씨가 일본, 특히 큐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어 별로 지루함이 없이 목적지에 오후 7시 30분경에 도착했다.

우선 교류관에서 방을 배정받아 짐을 풀어 놓고 약 오후 8시경에 저녁만찬장인 식당으로 갔다. 이 자리에는 지난 3월에 한국의 남해 다랭이 마을과 곡성의 두가리 마을로 수학여행 왔을 때 만났던 할머니 7~8명과 마을 주민들이 2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또한 작년 농업인의 날 국제심포지엄에 초청되었던 큐슈농정국의 나카타 과장과 쿠마모토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장면주씨, 키쿠치양생원의 타케쿠마 명예원장, 농가레스토랑 대표 혼다씨 등도 함께 참석하여 우리를 매우 환대해주었다. 특히 이날은 한일 농민간 교류의 특별한 의미를 취재하려는 쿠마모토일일신문에서 우리 일행의 연수목적 등에 대한 취재도 있었다.

한일 대표의 인사 그리고 참석 내빈들의 축사, 참가자들의 소개에 이어 마을주민들이 마련한 기쿠치



▲ 만찬회장의 개별 소개시간

의 특별한 향토요리와 각종 술을 가운데 놓고 한일 농민간 즐거운 만찬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0시까지 이어졌다.

그 후 자리를 옆방으로 옮겨 지난 3월 키쿠치 할머니들의 한국 수행여행 시 촬영되었던 방송테이프를 보고 이어서 본격적인 교류가 진행되어 친밀한 사람끼리 소위 러브샷이 밤늦게 동안 진행되었다.

10일 오전에는 아침 식사 후에 고바야시 사무국장의 안내로 마을 둘러보기가 진행되었다. 치쿠후강 주변의 풍부한 수자원을 중심으로 논농사 중심의 이 마을도 과소화와 고령화로 쇠퇴한 지역이지만 도시의 젊은이를 NPO조직을 통해 도시 - 농촌 교류뿐만 아니라 해외교류를 통해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자긍심을 배양하고 교류인구의 증대로 지역활성화를 이끌어내는 평범한 마을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별 차이 없는 소규모 경지면적을 농촌마을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和牛, 농산물가내가공(두부 등), 화훼 및 버섯 재배가 중심작목이었다.

그 후 대형 승합차 2대로 무토씨의 양돈 농장으



▲ 지난 3월 한국 수학여행에 참가한 일본 할머니들과...

로 가서 친환경 양돈사육법(10a 당 10~12마리 방사로 약 12구획을 두어 100여 마리의 돼지 사육, 사육기간은 5~6개월 정도, 2구획은 휴경)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과 질문이 있었다. 특히 이 농장에는 도시에서 견습생으로 매년 젊은이들이 6개월~1년 동안 견습생으로 친환경농법과 농업철학을 무토씨에게 배우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날도 25~6세의 여자 견습생(토모코 씨)이 벌레에 물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연수단의 일행인 황준환(청양)씨는 이러한 연수제도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끼며 특히 무토씨의 농장운영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돌아오는 길에 온천지에 있는 식당에서 메밀국수를 메뉴로 점심식사 후 잠깐 시간을 내어 온천족욕을 즐기고 곧 키쿠치농업고등학교(한국 여주자연농고와 자매결연학교)로 갔다. 여기서 일본의 농업교육에 대한 설명과 실습장들을 돌아보았는데 무엇보다도 현장위주의 실습교육과 이러한 실습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녀 학생 모두가 열심히 스스로 하고 있는 다는 점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



▲ 다케쿠마 선생의 생활자연박물관 앞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교류관에서 화장실에 간 박만규(평창) 회원을 남겨둔 채 우리끼리만 왔다는 사실을 겨우 알아차리게 되어 고바야시 사무국장과 교류관으로 가서 박만규 회원을 모시고 다음 방문지인 키쿠치양생원(우리나라의 보건소에 해당)으로 오기도 했다.

키쿠치양생원의 명예원장인 타케쿠마 선생으로부터 醫·食·農교육을 테마로 한 대한 강의를 90분정도 들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는 건강을 지키고 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스스로 채마밭을 일구어 먹거리를 조달하며 이를 통해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흙을 일구고 친환경농업을 통해 지구를 지켜낸다고 이러한 강의 및 운동을 약 30년간 키쿠치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경험담 위주의 감명 깊은 강연이었다. 특히 다케쿠마 선생은 인간 생명의 본원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상징하고 이러한 생각을 접었을 때 부터 취미생활로 해온 그림 그리기로 승화시켜 그의 여성을 모티브로 한 많은 그림을 소개하기도 했다.

키쿠치양생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중탕에 들러



▲ 쿠마모토대학 도쿠노 교수의 특별강의

끈끈한 땀과 피로를 풀고 교류관로 돌아와 각자 집을 챙겨 본격적인 농가민박을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시아마(茶 전업농)씨 덕에 최동주, 김장희, ▷무토(양돈)씨덕에 유원조, 황준환 ▷우지모리씨(10년 전 귀농자, 벼)덕에는 권현숙, 김영현, 이경화, ▷미키(국화)씨 덕에 한상균, 이준성 ▷이와사키(벼, 완두)씨덕에는 전춘섭, 박만규 회원이 분산하여 5개 일본농가에서 민박이 실시되었다.

나는 김장희 회원과 이시아마씨 덕에서 저녁식사 후 궁금해서 나머지 4농가에 전화를 하여 문제점이 없나 점검을 했다. 다른 농가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와사키씨 덕에서는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10분후 이와사키씨 부인이 차로 나를 데리러 와서 김장희 회원과 함께 이와사키씨덕의 저녁식사에 함께 참여했다. 역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약간의 오해와 문제가 발생했으나 나의 통역으로 대체로 저녁식사와 술자라가 마무리되고 이어 이부자리가 깔리는 것을 보고 10시경 이와사키씨 덕으로 되돌아와 나도 김장희 회원과 잠자리에 들었다.

이날 11시가 넘어서 이와사키씨 부인이 다시 나를 데리러 왔다. 박만규 회원이 잠을 잘 못드는 것 같으니 다시 함께 가자는 것이다. 박만규 회원이 낮에 혼자 떨어져 있어 매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잠자리가 바뀌어 역시 쉽게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와사키씨와 우리 3명(전춘섭, 박만규, 최동주)은 이와사키씨의 차를 타고 그의 논과 밭, 그리고 새로 짓는 집을 구경했다. 이 지역의 농가들은 대개 3세대가 함께 살며 겸업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사키씨도 원래 본업은 목수로써 농사는 부업으로 짓고 있는 부모님과 아들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사는 4세대의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7월 11일은 각자 민박농가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오전 9시에 교류관에 모여서 환송인사를 나온 마을주민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9시30분에 버스를 타고 아소 분화구 관광에 나섰다. 아소 분화구는 활화산으로써 아직도 하얀 유황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 날은 하늘이 흐려 화산 관광객은 거의 없었으나 케이블카 플랫폼에서 한국의 광주와 나주에서 온 관광객들과 만나 매우 반가웠다. 활화산 견학 후 바로 아소시에 있는 아소지역진흥디자인센터(7개 지자체가 공동 출자로 만든 민간기구, 정부의 각종 지역진흥사업을 아소 지역 7개 지자체의 행정구역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구)에 들러 사카모토사무국장과 함께 아소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타운투어리즘(물과 분수를 길거리로 끌어내고, 상점 간판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고, 상점가의 특산물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끌어 들임)에 대한 견학과 설명을 듣고 점심식사를

위해 향토 요리하는 농가(민숙 츠카사, 야마베 할머니 85세)로 이동했다. 이 농가는 6년전 에 방문한 적이 있는 민박농가로서 이지역의 전통향토요리를 한상 가득 차려 내는 아주 유명한 곳이다. 할머니의 음식소개에 이어 맛있게 점심식사를 끝낸 후 마을주민들의 안내로 소위 그린투어리즘의 일환으로 마을 안길과 전통농가 구조, 그리고 1500년전 당시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내부는 황금분칠 흔적이 있음)과 國造神社와 1000년 된 삼나무 내력 등에 대한 안내와 설명으로 일본 전통과 문화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우리 일행은 아소지역진흥디자인센터로 자리를 옮겨 아소칼데라 투어리즘에 대한 사카모토사무국장의 강의를 약 1시간 정도 들었다. 주요내용은 지역활성화 사업의 목적으로써 우선 지역을 사랑하고 인간관계 만들기, 스스로 자신 만들기(지성, 감성, 애정을 높이고 사욕, 미망은 버릴 것), 농촌체험은 지역사람들의 삶을 느끼고 지역과의 교류를 역점을 두고 농촌에서 시간 보내기, 즉 지역활성화는 사람이 모이게 하고, 돈을 쓰고 싶게 하고, 진짜 물건(체험, 서비스 포함)을 만들어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이어 사카모토씨와 이시마츠씨의 소개로 宿房 아소라는 농가민박(여관급)으로 이동해서 일본의 바사시 등 전통요리와 한국의 소주로 우리끼리만의 회포를 풀었다.

7월 12일(넷째 날)은 아침식사 후 곧바로 쿠마모토 대학으로 이동해서 도쿠노 교수의 <일본농촌의 삶> 대한 특강을 장면주씨의 통역으로 들었다. 도쿠노 교수는 사람에게 역점을 두고 후계자와 소비자의 분석에

연구를 하는 학자로서 겸업농가들의 삶의 질을 도시 사람과 비교 분석, 인구축소론에 관점을 두고 지역활성화사업을 전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정주인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겸업농가 육성으로 농촌에 사람이 살게 만들어야 하고, 尊農사상을 국민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농가의 소득보다는 농촌주민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오후에는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쿠마모토대 학생들과 함께 400년전 토요토미히데요시가 건설한 쿠마모토城을 약 1시간30분에 걸쳐 견학했다. 토요토미의 한국정벌에서 도예공, 한지기술자, 축성기술자들을 데리고 와 이들이 살 수 있는 울산거리를 만들었고 아직도 그 지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

쿠마모토城 견학 후에는 다시 도쿠노 교수와 함께 오오카초에 있는 버섯영농조합을 방문 하여 우선재배실, 종균배양실, 배지실 등을 견학한 후 조합장으로부터 쌀 산지에서 농한기에 소득을 높이고 일거리를 창출하여 젊은이와 여성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품목 즉 버섯재배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오키초를 6시경에 출발하여 이번 연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숙소인 캄포노 야도 야나카와에 7시경에 도쿠노 교수와 도착하여 각자 방을 배정 받아 짐을 놓고 만찬회에 참석하였다. 이날은 호텔에서 특별히 한국김치와 김을 내 놓아 우리를 즐겁게 했다. 비가 내리는 야나카와강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10시30분경에 모두 온천탕으로 들어가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온천욕 후에 역시 일본의 마지막 밤을 그대로 보낼 수 없다는 회원들의 성화로 읍내로 나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술집을 발견하고 15분 간 예약을 하고 일본 안주와 술로 마무리를 하였다.

7월 11일 아침 6시, 지난밤 계속해서 장대같은 비가 억수로 내리고 아침 TV뉴스에서는 태풍 4호로 오키나와가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일기예보가 특집을 이루고 있다. 부랴부랴 아침식사 후 회원들과 논의하여 오전의 관광과 쇼핑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버스를 타고 하카다항으로 직행을 하였다. 버스 안에서 도쿠노 교수가 선박회사와 연락을 취해 우리의 승선시간을 오전 10시30분배로 변경시켜주었다. 이날도 비 때문에 우리는 10시15분경에 가까스로 항구에 도착해서 급히 입국수속을 마치고 비틀호에 승선했다.

일본해역은 태풍의 영향에도 잠잠했으니 한국해역에 드러설 무렵 제법 큰 파도가 일렁거렸다. 오후 1시30분경에 부산항에 도착 후 마지막 평가회 겸 점심식사를 마치고 부산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도쿠노 교수에게 무사히 귀국했다는 전화를 한 후 우리들은 각자 집으로 향했다.

이번 일본연수는 특강 3개를 포함해 알찬 연수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일본 농촌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은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일본의 농가(기쿠치지역)는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가 70%로 아직도 농촌에 겸업농가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마지막으로 별 어려움 없이 이번 연수를 함께 한 참가회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㉞